



한국HP, 인디고 워크 기자간담회 개최 “연포장 · 골판지 포함 패키지 비즈니스 전략 강화”

한국HP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HP 인디고 파주 데모센터에서 미디어 관계자, 고객사를 대상으로 HP 인디고 워크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첫째 날인 13일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포장 및 골판지 분야를 포함하는 패키징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김병수 한국HP 상무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HP 회계 연도가 10월에 끝나고 11월부터 2015년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만큼 2015년을 준비하는 HP의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고, HP 인디고뿐만 아니라 전후처리 장비를 포함하는 파트너사의 장비와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디고 10000 통해 상업인쇄 자신감 획득

HP는 인디고 10000의 폭발적인 반응에 의해 상업인쇄 분야에서의 자신감이 확대되고 있

며, 이를 바탕으로 라벨에서부터 연포장, 지가공에 이르는 패키지비즈니스 전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HP가 국내 영업 대상으로 하는 1000개 정도의 인쇄사 중에서 패키징 관련 업체가 1/3을 상회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PET, PVC 등에 인쇄가 가능토록 응용을 다양화하는 인디고 7800과 같은 새로운 장비를 함께 공개했으며, 플라스틱카드나 투명필름 등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제작에 활용될 수 있는 원색인쇄 스킵 등도 선보였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노력해온 결과를 바

탕으로 그라비아 및 플렉소 인쇄가 중심이었던 연포장 분야의 식품용기 인쇄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 계획을 밝혔으며, 상품 박스를 포함하는 골판지 지가공 인쇄에 이르는 패키징 분야 포트폴리오 완성 계획을 발표했다.

확대되는 패키지 시장 공략 당면

마케팅 전략 발표가 끝난 후에는 데모센터에서 각각의 장비 및 인쇄 샘플에 대한 포트폴리오 체험이 기회가 이어졌다. 데모 행사에는 HP 인디고 이외에 지엠피, 와이피엘 등의 후가공 파트너사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김병수 상무는 “HP는 디지털 인쇄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오늘의 행사가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쇄인이 패키지인쇄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만큼 패키지 시장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는 한국HP 김병수 상무



샘플 및 포트폴리오에 대해 설명하는 한국HP 박현수 차장